

[여성과총 결과보고서]

# 전문직단체의 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연구

2022. 11.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여성인권센터



## 1. 설문 배경

사회 전반에 성평등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동시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발과 역차별 주장 또한 거세지고 있다. 치과계에 아직도 존재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의 선발과정이나 수련과정 중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성차별, 남성에 비해 낮은 고용안정성과 불리한 계약조건 등의 성차별 문화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치과의사들에게는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치과계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여성인권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초로 치과의사 사회의 현실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체 치과의사들의 성평등 인식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조사연구는 치과의사와 미래치과의사들의 성평등 인식, 실천 양태를 성별, 연령별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요구를 수렴하여 촉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성평등 문화가 치과의사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한다.

## 2. 설문조사 설명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의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Ⅱ): 표준화 기준 마련 및 검사활용 매뉴얼 제작」보고서에서 개발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성인식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치과의사와 미래치과의사들의 성평등 인식과 실천 양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2022년 8월 23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57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문항은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여성의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등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1]과 같다.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공적영역에서 남녀 간 능력과 역할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성의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는 ‘여성들의 권리 요구나 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및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는 각각 여성의 행동, 언어, 옷차림 등에서 정숙함의 규범과 남성의 역할, 책임, 남성 다움의 규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는 가계 계승 및 상속에서의 아들 중심주의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남녀의 역할 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문항의 수는 3개~8개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설문 문항의 구성

구 분	내 용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 한다
	자력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을 시켜야 한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 대우를 원한다
	여성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없다
	여성들은 체력은 안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가정과 직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못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더 보기 흉하다
	여성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크다
	남성은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성이 하고 차례상 음식 마련은 여성이 하는 것이 공평하다
	집안일에는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치과의사와 미래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인지 감수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총 57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남성은 309명, 여성은 268명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였으며 기혼은 420명, 미혼은 157명으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의 경우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20대,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조사 참여자들 중 개원의는 376명으로, 약 66%에 달하였으며 학생은 약 19%(110명), 봉직의는 약 8%(46명), 교수는 약 5%(27명)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거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약 80%가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도(48명), 전라도(36명), 경상도(25명), 강원도(7명), 제주도(1명) 순이었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수
성별	남성	309(53.6%)
	여성	268(46.4%)
연령	19-29세	114(19.8%)
	30-39세	37(6.4%)
	40-49세	112(19.4%)
	50-59세	264(45.8%)
	60-69세	49(8.5%)
	70세 이상	1(0.2%)
지위	학생	110(19.3%)
	개원의	376(65.8%)
	봉직의	46(8.1%)
	교수	27(4.7%)
	공무원	2(0.4%)
	수련의	4(0.7%)
	타업종 종사자	1(0.2%)
	전공의	1(0.2%)
	레지던트	1(0.2%)
	공보의	2(0.4%)
	인턴	1(0.2%)
혼인 및 자녀여부	미혼, 자녀없음	144(25.0%)
	미혼, 자녀있음	13(2.3%)
	기혼, 자녀없음	29(5.0%)
	기혼, 자녀있음	391(67.8%)
주거지역	강원도	7(1.2%)
	경상도	25(4.3%)
	수도권	459(79.7%)
	전라도	36(6.3%)
	제주도	1(0.2%)
	충청도	48(8.3%)

## 4. 설문 결과

### 1)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 수

[표 3]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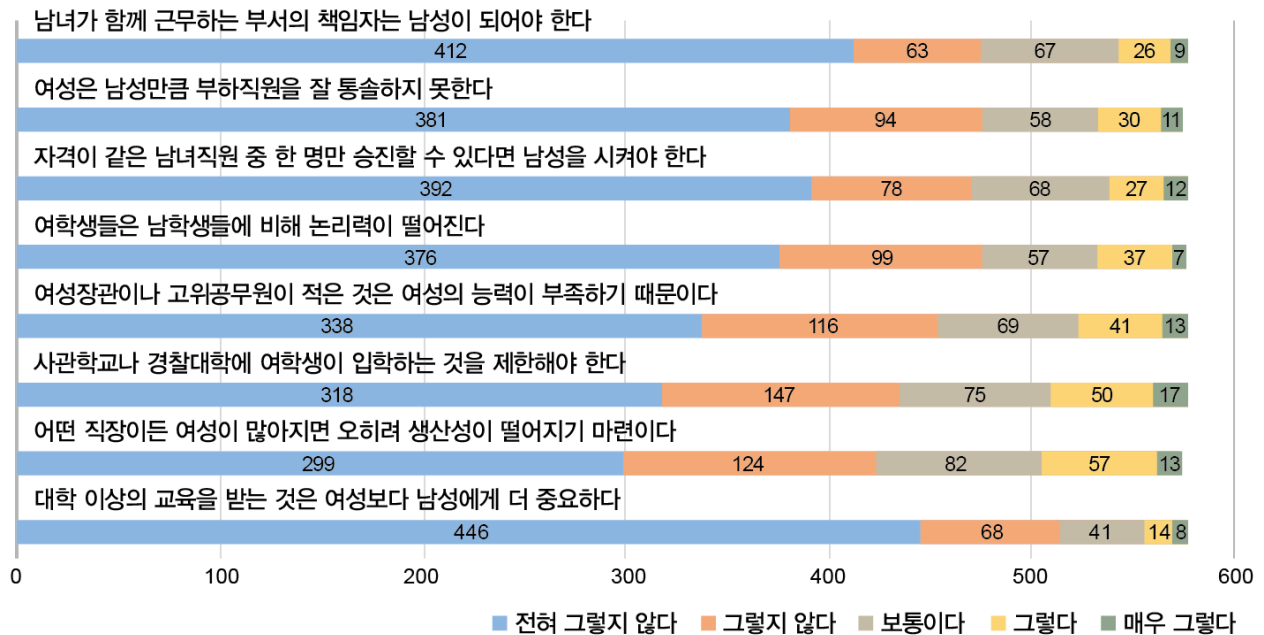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	412 (71.4)	63 (10.9)	67 (11.6)	26 (4.5)	9 (1.6)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381 (66.4)	94 (16.4)	58 (10.1)	30 (5.2)	11 (1.9)
	자력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을 시켜야 한다	392 (67.9)	78 (13.5)	68 (11.8)	27 (4.7)	12 (2.1)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376 (65.3)	99 (17.2)	57 (9.9)	37 (6.4)	7 (1.2)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38 (58.6)	116 (20.1)	69 (12.0)	41 (7.1)	13 (2.3)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318 (55.1)	117 (20.3)	75 (13.0)	50 (8.7)	17 (2.9)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299 (52.0)	124 (21.6)	82 (14.3)	57 (9.9)	13 (2.3)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446 (77.3)	68 (11.8)	41 (7.1)	14 (2.4)	8 (1.4)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	214 (37.2)	120 (20.8)	128 (22.2)	71 (12.3)	43 (7.5)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	196 (34.0)	124 (21.5)	113 (19.6)	93 (16.1)	50 (8.7)
	여성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운다	218 (37.8)	129 (22.4)	106 (18.4)	86 (14.9)	38 (6.6)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없다	211 (36.6)	176 (30.5)	106 (18.4)	57 (9.9)	27 (4.7)
	여성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199 (34.5)	118 (20.5)	119 (20.7)	100 (17.4)	40 (6.9)
	가정과 직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244 (42.4)	133 (23.1)	112 (19.5)	52 (9.0)	34 (5.9)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346 (60.1)	103 (17.9)	67 (11.6)	52 (9.0)	8 (1.4)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더 보기 흉하다	307 (53.2)	98 (17.0)	88 (15.3)	64 (11.1)	20 (3.5)
	여성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305 (53.0)	98 (17.0)	88 (15.3)	56 (9.7)	29 (5.0)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304 (52.7)	107 (18.5)	96 (16.6)	52 (9.0)	18 (3.1)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크다	202 (35.0)	77 (13.3)	88 (15.3)	164 (28.4)	46 (8.0)
	남성은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250 (43.3)	111 (19.2)	101 (17.5)	92 (15.9)	23 (4.0)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331 (57.4)	104 (18.0)	82 (14.2)	49 (8.5)	11 (1.9)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29 (5.0)	17 (3.0)	43 (7.5)	63 (10.9)	424 (73.6)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428 (74.4)	74 (12.9)	46 (8.0)	11 (1.9)	16 (2.8)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356 (61.8)	71 (12.3)	81 (14.1)	46 (8.0)	22 (3.8)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16 (37.4)	107 (18.5)	127 (22.0)	94 (16.3)	33 (5.7)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성이 하고 차례상 음식 마련은 여성이 하는 것이 공평하다	275 (47.7)	130 (22.5)	102 (17.7)	50 (8.7)	20 (3.5)
	집안일에는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270 (46.9)	137 (23.8)	88 (15.3)	63 (10.9)	18 (3.1)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261 (45.2)	114 (19.8)	107 (18.9)	70 (12.1)	23 (4.0)

## 2) 문항별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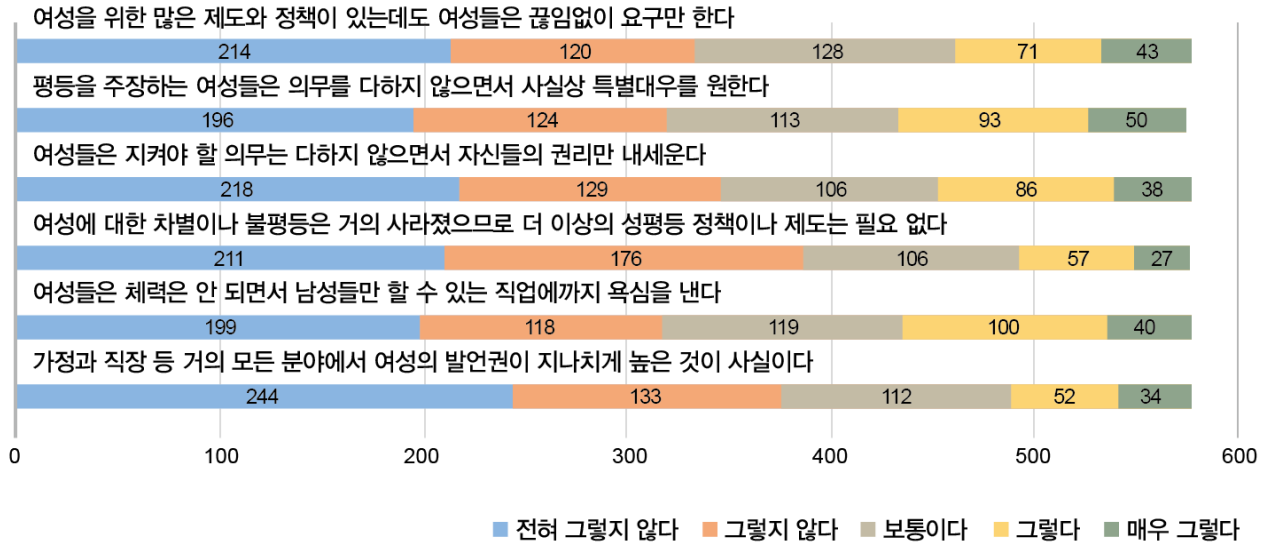
### (1)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그림 1] 문항 별 응답 수 -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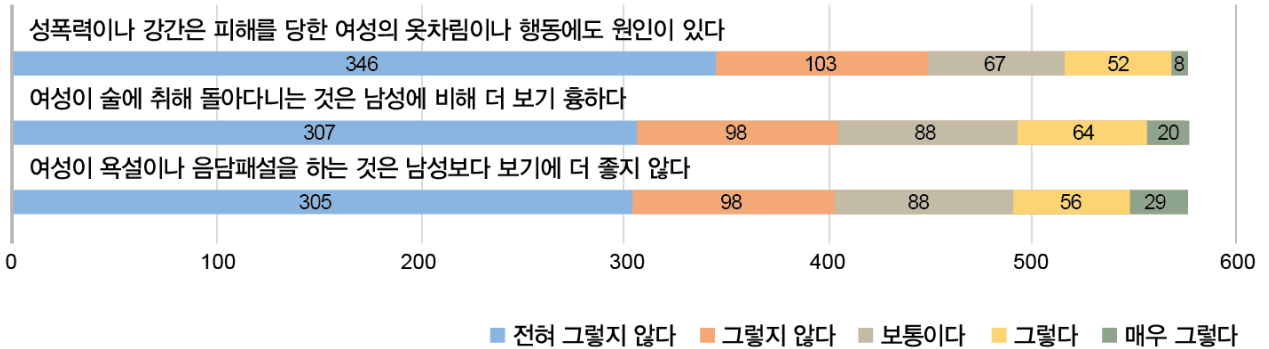
## (2)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그림 2] 문항별 응답 수 -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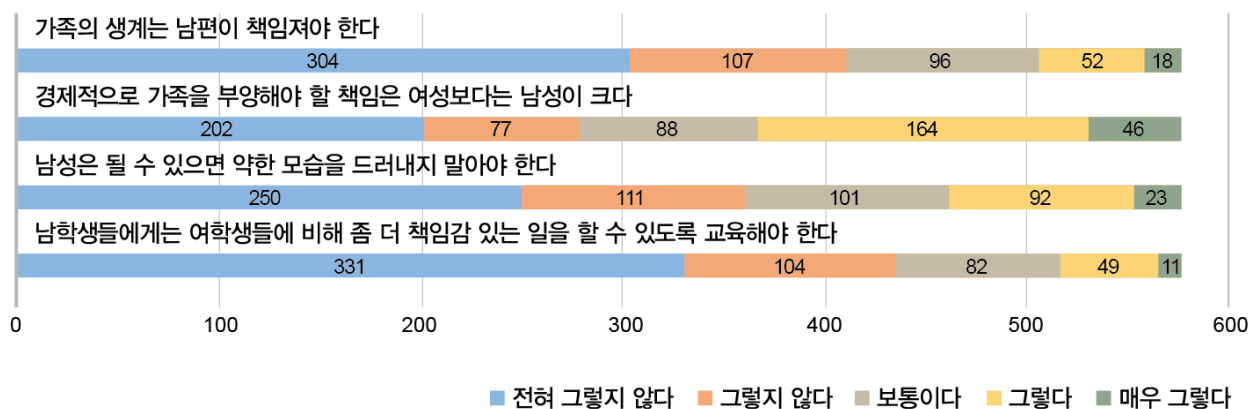
## (3)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그림 3] 문항별 응답 수 -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 (4)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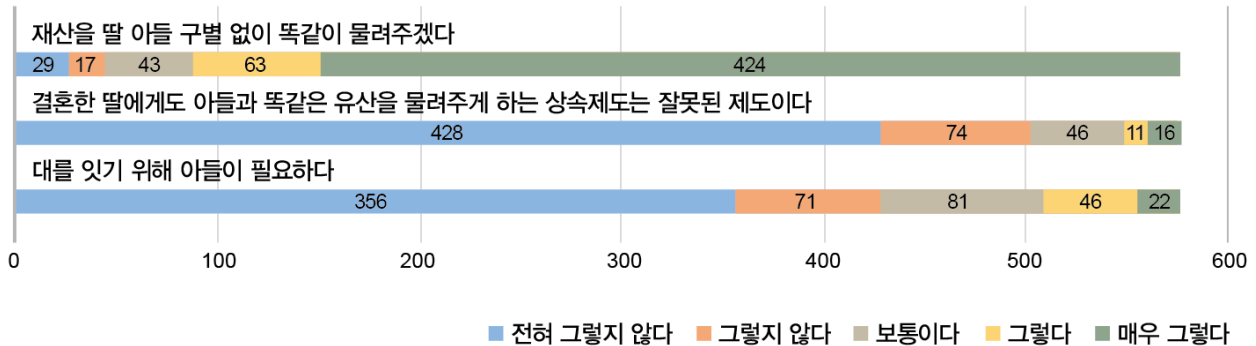
[그림 4] 문항별 응답 수 -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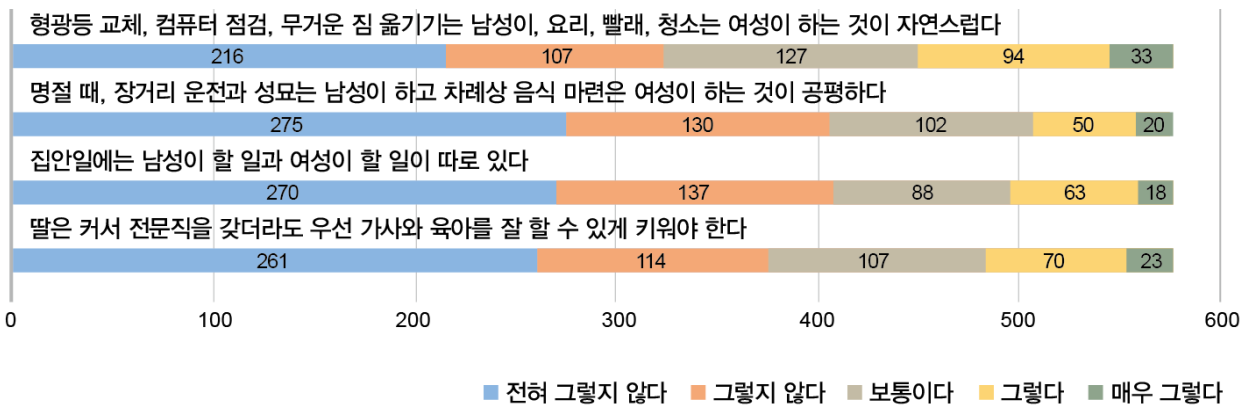
### (5) 부계중심적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

[그림 5] 문항별 응답 수 - 부계중심적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



### (6)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그림 6] 문항별 응답 수 -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 5. 집단 간 비교

성별 그리고 세대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5.0을 활용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성별, 세대별(20대와 50대) 그리고 세대에 따른(20대와 50대) 성별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계적 검정을 위해서는 특정한 값을 모수(Parameter)의 값으로 가정하는 가설을 설정해야 한다<sup>1)</sup>. 가설은 영가설( $H_0$ )과 대립가설( $H_1$ )으로 나뉜다. 영가설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영가설에 반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수용되어야 하는 가설을 뜻한다. 만약 검정 대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이 영가설이 된다. 대립가설은 영가설에 반대되는 것으로 '영가설이 거짓일 경우 그 대안으로 참이 되는 가설'을 의미한다. 즉, 영가설이 통계적 검정을 통해 기각되었을 경우, 대안적으로 채택되는 가설인 것이다. 이를 독립표본 t-test에 적용하였을 때, 검정의 대상이 되는 영가설은 '한 집단의 평균과 다른 집단의 평균은 서로 동일하다'이며 대립가설은 '한 집단의 평균

1) 조지현, 정영해, 황현식, &정은진. (2008). [한국사회조사연구소](SPSS 14.0) 통계자료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4), 0-0.

과 다른 집단의 평균은 동일하지 않다'이다. 만약 검정 통계량인 t-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확인된다면, '두 집단의 평균은 동일하다'는 영가설은 기각되고 '두 집단의 평균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게 된다.

## 1) 성별 간 비교

### (1) 영역별 비교

[표 4] 영역별 성평등 인식의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	남성	4.13	0.83	-8.202***	.000
	여성	4.61	0.58		
여성 권리요구	남성	3.25	1.08	-12.391***	.000
	여성	4.24	0.85		
여성 성역할 규범	남성	3.83	1.10	-7.717***	.000
	여성	4.45	0.83		
남성 성역할 규범	남성	3.48	1.10	-10.846***	.000
	여성	4.33	0.78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남성	4.18	0.87	-7.434***	.000
	여성	4.64	0.60		
가정에서의 성평등	남성	3.55	1.03	-10.094***	.000
	여성	4.30	0.75		

\* p<.05, \*\* p<.01, \*\*\* p<.001

6가지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인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4]). 먼저,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의 경우 남성의 평균은 4.13점, 여성의 평균은 4.61점이었으며 .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여성의 권리요구 영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은 각각 3.25점과 4.24점이었으며 평균점수의 차이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및 남성 성역할 규범의 경우, 남성의 평균은 3.83점과 3.48점, 여성의 평균은 4.45점과 4.33점이었고 이 역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영역에서의 평균은 남성 4.18점, 여성 4.64점이었고 가정에서의 성평등에서의 평균은 남성 3.55점, 여성 4.30점으로 .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설문항목별 비교

①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표 5]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에서의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설문항목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	남성	4.23	1.12	-6.681 ***	.000
	여성	4.73	0.66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 한다	남성	4.18	1.09	-6.119 ***	.000
	여성	4.66	0.79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을 시켜야 한다	남성	4.17	1.14	-6.292 ***	.000
	여성	4.67	0.74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남성	4.14	1.09	-7.034 ***	.000
	여성	4.68	0.75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성	4.00	1.16	-6.672 ***	.000
	여성	4.56	0.85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남성	3.96	1.21	-4.608 ***	.000
	여성	4.38	0.98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남성	3.85	1.21	-6.212 ***	.000
	여성	4.41	0.91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남성	4.45	0.96	-5.285 ***	.000
	여성	4.80	0.61		

\* p<.05, \*\* p<.01, \*\*\* p<.001

성별에 따른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 태도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4.23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73점이었으며 .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 한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는 남성 4.18점, 여성 4.66점이었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을 시켜야 한다’ 문항에서는 남성 4.17점, 여성 4.67점이었으며 평균점수의 차이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에서는 남성은 4.14점, 여성은 4.68점이었고 그 차이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점수는 각각 4.00점과 4.56점이었으며 .001 수준에서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96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38점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3.85점, 여성 4.41점이었고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평균점수 차이를 보였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4.45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80점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②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표 6]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에서의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설문항목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	남성	3.19	1.31	-10.822 ***	.000
	여성	4.24	1.01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	남성	3.08	1.31	-10.133 ***	.000
	여성	4.11	1.14		
여성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운다	남성	3.23	1.31	-10.431 ***	.000
	여성	4.24	1.03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없다	남성	3.43	1.22	-10.294 ***	.000
	여성	4.32	0.86		
여성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남성	3.11	1.31	-10.176 ***	.000
	여성	4.12	1.07		
가정과 직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남성	3.40	1.27	-11.156 ***	.000
	여성	4.41	0.90		

\* p<.05, \*\* p<.01, \*\*\* p<.001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평등 태도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모든 문항에서 그 차이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는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3.19점, 여성 4.24점이었고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에서는 남성 3.08점, 여성 4.11점이었다. ‘여성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운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23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24점이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없다’ 문항의 남성 평균점수는 3.43점, 여성 평균점수는 4.32점이었다. ‘여성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문항과 ‘가정과 직장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은 각각 3.11점과 3.40점, 여성은 4.12점과 4.41점으로 확인되었다.

## ③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표 7]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의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남성	4.00	1.17	-6.699 ***	.000
	여성	4.56	0.84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더 보기 흉하다	남성	3.76	1.29	-6.727 ***	.000
	여성	4.40	0.99		
여성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남성	3.72	1.33	-6.845 ***	.000
	여성	4.39	1.01		

\* p<.05, \*\* p<.01, \*\*\* p<.001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 차이는 [표 7]과 같다.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점수는 각각 4.00점과 4.56점으

로 .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더 보기 흉하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76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40점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의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3.72점, 여성 4.39점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④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표 8]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의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남성	3.79	1.26	-7.155 ***	.000
	여성	4.43	0.90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크다	남성	2.97	1.41	-8.228 ***	.000
	여성	3.88	1.24		
남성은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남성	3.25	1.28	-13.822 ***	.000
	여성	4.48	0.83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남성	3.93	1.12	-6.940 ***	.000
	여성	4.52	0.85		

\* p<.05, \*\* p<.01, \*\*\* p<.001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의 남녀 간 성평등 인식은 .001 수준에서 모든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의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79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43점이었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성보다 남성이 크다’의 문항에서는 남성 2.97점 여성 3.88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에서는 남성의 평균점수는 3.25점을 보였고 여성의 평균점수는 4.48점을 보였다.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점수는 각각 3.93점과 4.52점으로 나타났다.

#### 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표 9]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의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남성	4.34	1.10	-2.594 *	.010
	여성	4.58	1.06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남성	4.36	1.02	-5.446 ***	.000
	여성	4.76	0.75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남성	3.86	1.23	-8.189 ***	.000
	여성	4.60	0.86		

\* p<.05, \*\* p<.01, \*\*\* p<.001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문항에서의 남성 평균점수는 4.34점, 여성 평균점수는 4.58점으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의 문항에서 평균점수의 차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남성: 4.36점, 여성: 4.76점),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에서의 평균점수 차이 또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남성: 3.86점, 여성: 4.60점).

### ⑥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표 10]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에서의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남성	3.27	1.34	-8.382 ***	.000
	여성	4.10	1.06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성이 하고 차례상 음식 마련은 여성이 하는 것이 공평하다	남성	3.67	1.23	-8.591 ***	.000
	여성	4.43	0.89		
집안일에는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남성	3.64	1.23	-8.858 ***	.000
	여성	4.43	0.90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남성	3.61	1.27	-6.357 ***	.000
	여성	4.23	1.06		

\* p<.05, \*\* p<.01, \*\*\* p.<001

[표 10]은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결과에 대한 것으로, 모든 문항에서의 평균점수 차이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27점이었으며 여성의 평균점수는 4.10점이었다.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성이 하고 차례상 음식 마련은 여성이 하는 것이 공평하다'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은 3.67점, 여성은 4.43점이었고 '집안일에는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남성은 3.64점, 여성은 4.43점이었다. '딸은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에서의 남성 평균점수는 3.61점으로, 여성 평균점수는 4.23점으로 나타났다.

## 2) 세대(20대, 50대) 간 비교

### (1) 영역별 비교

[표 11] 영역별 성평등 인식의 세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	20대	4.42	0.88	0.903	.367
	50대	4.34	0.70		
여성 권리요구	20대	4.03	1.07	0.281 **	.005
	50대	3.70	1.04		
여성 성역할 규범	20대	4.60	0.89	6.874 ***	.000
	50대	3.88	1.04		
남성 성역할 규범	20대	4.26	0.99	4.415 ***	.000
	50대	3.76	1.01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20대	4.39	0.89	0.231	.817
	50대	4.37	0.75		
가정에서의 성평등	20대	4.14	0.93	3.263 **	.001
	50대	3.80	0.95		

\* p<.05, \*\* p<.01, \*\*\* p.<001

6가지의 영역에서 20대와 50대의 성평등 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11]). 먼저,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의 경우 20대의 평균은 4.42점, 50대의 평균은 4.34점이었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권리요구 영역에서는 20대와 50대의 평균은 각각 4.03점과 3.70점이었으며 평균점수의 차이가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및 남성 성역할 규범의 경우, 20대의 평균은 4.60점과 4.26점, 50대의 평균은 3.88점과 3.76점이었고 이 역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영역에서의 평균은 20대는 4.39점, 50대는 4.37점이었고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성평등에서의 평균은 20대 4.14점, 50대 3.80점으로 .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2) 설문문항별 비교

### ①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표 12]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에서의 세대 차이 분석 결과

설문항목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	20대	4.42	1.08	-0.487	.627
	50대	4.47	0.91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 한다	20대	4.43	1.02	0.180	.857
	50대	4.41	0.93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을 시켜야 한다	20대	4.46	1.03	1.008	.314
	50대	4.34	1.02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20대	4.60	0.89	2.565 *	.011
	50대	4.33	0.97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대	4.24	1.15	-0.374	.708
	50대	4.28	0.99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20대	4.01	1.26	-1.491	.137
	50대	4.20	1.06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20대	4.42	0.97	3.130 *	.002
	50대	4.07	1.09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20대	4.65	0.91	0.492	.623
	50대	4.60	0.82		

\* p<.05, \*\* p<.01, \*\*\* p<.001

20대와 50대의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 태도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 20대의 평균점수는 4.42점, 50대의 평균점수는 4.47점이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 한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는 20대 4.43점, 50대 4.41점이었고 이 문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을 시켜야 한다’ 문항에서는 20대 4.46점, 50대 4.34점이었으며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에서는 20대는 4.60점, 50대는 4.33점이었고 그 차이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에서는 20대와 50대의 평균점수는 각각 4.24점과 4.28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 20대의 평균 점수는 4.01점, 50대의 평균점수는 4.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에서의 평균점수는 20대 4.42점, 50대 4.07점이었으며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평균점수 차이를 보였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서 20대의 평균점수는 4.65점, 50대의 평균점수는 4.6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②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표 13]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에서의 세대 차이 분석 결과

설문항목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	20대	3.87	1.23	0.787	.432
	50대	3.76	1.22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	20대	3.99	1.25	3.257 **	.001
	50대	3.53	1.27		
여성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운다	20대	4.02	1.21	2.614 *	.010
	50대	3.66	1.25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없다	20대	4.10	1.18	2.138 *	.033
	50대	3.83	1.11		
여성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20대	3.89	1.32	2.089 *	.037
	50대	3.59	1.23		
가정과 직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대	4.34	1.08	4.616 ***	.000
	50대	3.76	1.22		

\* p<.05, \*\* p<.01, \*\*\* p<.001

세대에 따른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의 차이 분석 결과는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3]).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는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20대 3.87점, 50대 3.76점이었고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에서는 20대 3.99점, 50대 3.53점이었다. ‘여성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운다’라는 문항에서 20대의 평균점수는 4.02점, 50대의 평균점수는 3.66점이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없다’ 문항의 20대 평균점수는 4.10점, 50대 평균점수는 3.83점이었다. ‘여성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문항과 ‘가정과 직장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20대는 각각 3.89점과 4.34점, 50대는 3.59점과 3.76점으로 확인되었다.



### ③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표 14]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의 세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20대	4.64	0.93	4.749	.000
	50대	4.12	1.07	***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더 보기 흉하다	20대	4.62	0.95	7.342	.000
	50대	3.77	1.22	***	
여성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20대	4.55	1.01	6.394	.000
	50대	3.77	1.28	***	

\* p<.05, \*\* p<.01, \*\*\* p<.001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 20대와 50대의 성평등 인식 차이는 [표 14]와 같다.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에서의 20대와 50대의 평균점수는 각각 4.64점과 4.12점으로 .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더 보기 흉하다’라는 문항에서 20대의 평균점수는 4.62점, 50대의 평균점수는 3.77점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의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20대 4.55점, 남성 3.77점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④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표 15]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의 세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20대	4.37	1.08	2.917	.004
	50대	4.00	1.16	**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성보다 남성이 크다	20대	3.89	1.35	4.250	.000
	50대	3.25	1.34	***	
남성은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20대	4.31	1.07	5.022	.000
	50대	3.67	1.27	***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20대	4.46	0.95	3.007	.003
	50대	4.13	1.06	**	

\* p<.05, \*\* p<.01, \*\*\* p<.001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의 세대 간 성평등 인식은 .001 수준에서 모든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5]).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의 문항에서 20대의 평균점수는 4.37점, 50대의 평균점수는 4.00점이었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성보다 남성이 크다’의 문항에서는 20대 3.89점, 50대 3.25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에서는 20대의 평균점수는 4.31점을 보였고 50대의 평균점수는 3.67점을 보였다.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에서의 20대와 50대의 평균점수는 각각 4.46점과 4.13점으로 나타났다.

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표 16]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의 세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20대	4.45	1.14	0.127	.899
	50대	4.43	1.07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20대	4.43	1.11	-0.922	.357
	50대	4.56	0.91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20대	4.30	1.25	1.101	.272
	50대	4.15	1.16		

\* p<.05, \*\* p<.01, \*\*\* p<.001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의 20대와 50대의 성평등 인식의 차이는 [표 16]과 같으며 모든 문항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문항에서의 20대 평균점수는 4.45점, 50대 평균점수는 4.43점이었으며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의 문항에서 20대는 4.43점, 50대는 4.56점으로 확인되었다.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에서의 20대의 평균점수는 4.30점, 50대는 4.1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⑥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표 17]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에서의 세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0대	3.82	1.18	1.850	.066
	50대	3.57	1.29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성이 하고 차례상 음식 마련은 여성이 하는 것이 공평하다	20대	4.26	1.11	2.564*	.011
	50대	3.95	1.10		
집안일에는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20대	4.28	1.14	2.994**	.003
	50대	3.90	1.13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20대	4.20	1.14	3.216**	.001
	50대	3.77	1.21		

\* p<.05, \*\* p<.01, \*\*\* p<.001

[표 17]은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의 세대 간 차이 분석 결과에 대한 것으로,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의 평균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에서 20대의 평균점수는 3.82점이었으며 50대의 평균점수는 3.57점이었다.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성이 하고 차례상 음식 마련은 여성이 하는 것이 공평하다’에서의 평균점수는 20대는 4.26점, 50대는 3.95점이었고 ‘집안일에는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20대는 4.28점, 50대는 3.90점이었다. ‘딸은 전문직을 갖

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에서의 20대 평균점수는 4.20점으로, 50대 평균점수는 3.77점으로 나타났다.

### 3) 20대 남녀 간 비교

#### (1) 영역별 비교

[표 18] 영역별 성평등 인식의 2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	남성	3.96	1.19	-3.229 **	.002
	여성	4.63	0.59		
여성 권리요구	남성	3.35	1.20	-4.631 ***	.000
	여성	4.36	0.82		
여성 성역할 규범	남성	4.12	1.14	-3.045 **	.004
	여성	4.80	0.66		
남성 성역할 규범	남성	3.69	1.28	-3.777 ***	.000
	여성	4.53	0.67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남성	3.99	1.12	-2.972 **	.005
	여성	4.58	0.68		
가정에서의 성평등	남성	3.78	1.10	-2.703 **	.009
	여성	4.32	0.79		

\* p<.05, \*\* p<.01, \*\*\* p<.001

6가지의 영역에서 20대 남녀의 성평등 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18]). 먼저,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의 경우 남성의 평균은 3.96점, 여성의 평균은 4.63점이었으며 .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여성의 권리요구 영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은 각각 3.35점과 4.36점이었으며 평균점수의 차이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및 남성 성역할 규범의 경우, 남성의 평균은 4.12점과 3.69점, 여성의 평균은 4.80점과 4.53점이었고 각각 .01 수준과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영역에서의 평균은 남성 3.99점, 여성 4.58점이었고 가정에서의 성평등에서의 평균은 남성 3.78점, 여성 4.32점으로 .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설문항목별 비교

①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표 19]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에서의 2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설문항목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	남성	3.84	1.48	-3.383	.002
	여성	4.71	0.67	**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남성	4.06	1.26	-2.376	.021
	여성	4.61	0.83	*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을 시켜야 한다	남성	4.11	1.33	-2.172	.035
	여성	4.62	0.81	*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남성	4.14	1.21	-3.270	.002
	여성	4.82	0.58	**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성	3.59	1.36	-3.871	.000
	여성	4.55	0.88	***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남성	3.59	1.40	-2.316	.024
	여성	4.21	1.14	*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남성	3.92	1.30	-3.294	.002
	여성	4.66	0.64	**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남성	4.22	1.29	-2.888	.006
	여성	4.86	0.56	**	

\* p<.05, \*\* p<.01, \*\*\* p<.001

20대 남성과 여성의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 태도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84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71점이었으며 .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 한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는 남성 4.06점, 여성 4.61점이었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을 시켜야 한다’ 문항에서는 남성 4.11점, 여성 4.62점이었으며 평균점수의 차이가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에서는 남성은 4.14점, 여성은 4.82점이었고 그 차이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점수는 각각 3.59점과 4.55점이었으며 .001 수준에서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59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21점으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3.92점, 여성 4.66점이었고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평균점수 차이를 보였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4.22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86점으로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②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표 20]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에서의 2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설문항목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	남성	3.00	1.33	-5.281	.000
	여성	4.29	0.93	***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	남성	3.35	1.42	-3.622	.001
	여성	4.30	1.04	**	
여성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운다	남성	3.35	1.38	-3.902	.000
	여성	4.34	0.98	***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없다	남성	3.46	1.39	-3.748	.000
	여성	4.40	0.94	***	
여성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남성	3.19	1.49	-3.757	.000
	여성	4.22	1.10	***	
가정과 직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남성	3.76	1.34	-3.634	.001
	여성	4.62	0.80	**	

\* p<.05, \*\* p<.01, \*\*\* p.<001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에서의 2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는 모든 문항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0]).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는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3.00점, 여성 4.29점이었고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에서는 남성 3.35점, 여성 4.30점이었다. ‘여성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운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35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34점이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없다’ 문항의 남성 평균점수는 3.46점, 여성 평균점수는 4.40점이었다. ‘여성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문항과 ‘가정과 직장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은 각각 3.19점과 3.76점, 여성은 4.22점과 4.62점으로 확인되었다.

## ③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표 21]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의 2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남성	4.24	1.23	-2.709	.009
	여성	4.83	0.68	**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더 보기 흉하다	남성	4.22	1.27	-2.697	.010
	여성	4.82	0.68	*	
여성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남성	4.11	1.27	-2.913	.005
	여성	4.77	0.78	**	

\* p<.05, \*\* p<.01, \*\*\* p.<001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 차이는 [표 21]과 같다.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점수는 각각 4.24점과 4.83점으로 .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더 보기 흉하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4.22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82점으로 .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의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4.11점, 여성 4.77점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④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표 22]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의 2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남성	3.84	1.37	-3.237 **	.002
	여성	4.62	0.81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성보다 남성이 크다	남성	3.43	1.54	-2.381 *	.021
	여성	4.12	1.20		
남성은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남성	3.51	1.37	-4.993 ***	.000
	여성	4.69	0.61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남성	3.97	1.28	-3.276 ***	.000
	여성	4.70	0.63		

\* p<.05, \*\* p<.01, \*\*\* p<.001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의 남녀 간 성평등 인식은 모든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2]).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의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84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62점이었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성보다 남성이 크다’의 문항에서는 남성 3.43점 여성 4.12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에서는 남성의 평균점수는 3.51점을 보였고 여성의 평균점수는 4.69점을 보였다.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점수는 각각 3.97점과 4.70점으로 나타났다.

#### 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표 23]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의 2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남성	4.46	1.07	0.078	.938
	여성	4.44	1.18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남성	4.11	1.20	-2.191 *	.031
	여성	4.58	1.03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남성	3.41	1.59	-4.817 ***	.000
	여성	4.73	0.74		

\* p<.05, \*\* p<.01, \*\*\* p<.001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의 20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의 차이는 [표 23]과 같다.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문항에서의 남성 평균점수는 4.46점, 여성 평균점수는 4.4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의 문항에서 평균점수의 차이는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남성: 4.11점, 여성: 4.58점),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에서의 평균점수 차이 또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남성: 3.41점, 여성: 4.73점).

⑥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표 24]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에서의 2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남성	3.32	1.27	-3.256 **	.001
	여성	4.06	1.07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성이 하고 차례상 음식 마련은 여성이 하는 것이 공평하다	남성	3.95	1.31	-2.158 *	.033
	여성	4.42	0.97		
집안일에는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남성	3.92	1.32	-2.206 *	.031
	여성	4.46	1.00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남성	3.92	1.30	-1.859	.066
	여성	4.34	1.03		

\* p<.05, \*\* p<.01, \*\*\* p<.001

[표 24]는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결과에 대한 것으로,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라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의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32점이었으며 여성의 평균점수는 4.06점이었다.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성이 하고 차례상 음식 마련은 여성이 하는 것이 공평하다’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은 3.95점, 여성은 4.42점이었고 ‘집안일에는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남성은 3.92점, 여성은 4.46점이었다. ‘딸은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에서의 남성 평균점수는 3.92점으로, 여성 평균점수는 4.34점으로 나타났다.

4) 50대 남녀 간 비교

(1) 영역별 비교

[표 25] 영역별 성평등 인식의 5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	남성	4.20	0.74	-4.386 ***	.000
	여성	4.55	0.57		
여성 권리요구	남성	3.37	1.02	-7.072 ***	.000
	여성	4.20	0.87		
여성 성역할 규범	남성	3.67	1.09	-4.390 ***	.000
	여성	4.20	0.88		
남성 성역할 규범	남성	3.51	1.04	-5.537 ***	.000
	여성	4.14	0.82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남성	4.18	0.82	-5.565 ***	.000
	여성	4.65	0.52		
가정에서의 성평등	남성	3.52	0.98	-6.616 ***	.000
	여성	4.21	0.72		

\* p<.05, \*\* p<.01, \*\*\* p<.001

6가지의 영역에서 50대 남녀의 성평등 인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25]). 먼저,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의 경우 남성의 평균은 4.20점, 여성의 평균은 4.55점이었으며 .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여성의 권리요구 영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은 각각 3.37점과 4.20점이었으며 평균점수의 차이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및 남성 성역할 규범의 경우, 남성의 평균은 3.67점과 3.51점, 여성의 평균은 4.20점과 4.14점이었고 이 역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영역에서의 평균은 남성 4.18점, 여성 4.65점이었고 가정에서의 성평등에서의 평균은 남성 3.52점, 여성 4.21점으로, .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2) 설문항목별 비교

### ①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표 26]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에서의 5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설문항목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	남성	4.29	1.0.	-4.506	.000
	여성	4.75	0.62	***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남성	4.25	1.00	-3.714	.000
	여성	4.65	0.77	***	
자력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을 시켜야 한다	남성	4.15	1.13	-4.099	.000
	여성	4.62	0.74	***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남성	4.21	1.02	-2.652	.009
	여성	4.52	0.86	**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성	4.15	1.05	-2.731	.007
	여성	4.47	0.84	**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남성	4.03	1.14	-3.292	.001
	여성	4.44	0.89	**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남성	3.95	1.14	-2.255	.025
	여성	4.25	0.97	**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	남성	4.53	0.88	-1.946	.053
	여성	4.72	0.71		

\* p<.05, \*\* p<.01, \*\*\* p<.001

50대 남성과 여성의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 태도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4.29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75점이었으며 .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여성은 남성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 한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는 남성 4.25점, 여성 4.65점이었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력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성을 시켜야 한다’ 문항에서는 남성 4.15점, 여성 4.62점이었으며 평균점수의 차이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에서는 남성은 4.21점, 여성은 4.52점이었고 그 차이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점수는 각각 4.15점과 4.47점이었으며 .01 수준에서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4.03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44점으로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3.95점, 여성 4.25점이었고 .01 수준에서 유의



미한 평균점수 차이를 보였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4.53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7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②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표 27]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에서의 5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설문항목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	남성	3.43	1.25	-5.981 ***	.000
	여성	4.26	0.98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	남성	3.18	1.23	-5.728 ***	.000
	여성	4.05	1.15		
여성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운다	남성	3.34	1.23	-5.402 ***	.000
	여성	4.14	1.12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없다	남성	3.54	1.17	-5.769 ***	.000
	여성	4.25	0.85		
여성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남성	3.22	1.22	-6.735 ***	.000
	여성	4.15	1.02		
가정과 직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남성	3.39	1.24	-6.810 ***	.000
	여성	4.31	0.95		

\* p<.05, \*\* p<.01, \*\*\* p<.001

50대 남성과 여성의 여성의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에서의 차이 분석 결과는 모든 문항에서 그 차이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7).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 없이 요구만 한다'는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3.43점, 여성 4.26점이었고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에서는 남성 3.18점, 여성 4.05점이었다. '여성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운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34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14점이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없다' 문항의 남성 평균점수는 3.54점, 여성 평균점수는 4.25점이었다. '여성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문항과 '가정과 직장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은 각각 3.22점과 3.39점, 여성은 4.15점과 4.31점으로 확인되었다.

### ③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표 28]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의 5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남성	3.94	1.14	-3.680 ***	.000
	여성	4.40	0.88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더 보기 흉하다	남성	3.54	1.27	-3.906 ***	.000
	여성	4.10	1.07		
여성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남성	3.53	1.32	-3.900 ***	.000
	여성	4.12	1.12		

\* p<.05, \*\* p<.01, \*\*\* p<.001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 50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 차이는 [표 28]과 같다.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점수는 각각 3.94점과 4.40점으로 .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더 보기 흉하다’라는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54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10점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성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의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 3.53점, 여성 4.12점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④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표 29]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에서의 5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남성	3.82	1.27	-3.311	.001
	여성	4.26	0.93	**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크다	남성	2.99	1.36	-4.051	.000
	여성	3.65	1.22	***	
남성은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남성	3.25	1.28	-7.372	.000
	여성	4.28	0.98	***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남성	3.97	1.11	-3.119	.002
	여성	4.38	0.94	**	

\* p<.05, \*\* p<.01, \*\*\* p.<001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의 50대 남녀 간 성평등 인식은 모든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9]).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의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82점, 여성의 평균점수는 4.26점이었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성보다 남성이 크다’의 문항에서는 남성 2.99점 여성 3.65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에서는 남성의 평균점수는 3.25점을 보였고 여성의 평균점수는 4.28점을 보였다.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점수는 각각 3.97점과 4.38점으로 나타났다.

#### 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표 30]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의 5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남성	4.30	0.91	-2.420	.016
	여성	4.62	4.25	*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남성	4.34	0.65	-4.603	.000
	여성	4.81	1.01	***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남성	3.91	1.03	-4.618	.000
	여성	4.52	1.08	***	

\* p<.05, \*\* p<.01, \*\*\* p.<001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의 50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의 차이는 [표 30]과 같다. ‘재

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문항에서의 남성 평균점수는 4.30점, 여성 평균점수는 4.62점으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의 문항에서 평균점수의 차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남성: 4.34점, 여성: 4.81점),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에서의 평균점수 차이 또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남성: 3.91점, 여성: 4.52점).

## ⑥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표 31]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에서의 5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

영역	집단 구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유의확률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남성	3.26	1.33	-5.206 ***	.000
	여성	4.04	1.09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성이 하고 차례상 음식 마련은 여성이 하는 것이 공평하다	남성	3.65	1.13	-5.917 ***	.000
	여성	4.39	0.88		
집안일에는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남성	3.61	1.19	-5.589 ***	.000
	여성	4.33	0.89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남성	3.56	1.23	-3.680 ***	.000
	여성	4.09	1.12		

\* p<.05, \*\* p<.01, \*\*\* p.<001

[표 31]은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의 50대 남녀 차이 분석 결과에 대한 것으로, 모든 문항에서의 평균점수 차이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성이, 요리, 빨래,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에서 남성의 평균점수는 3.26점이었으며 여성의 평균점수는 4.04점이었다.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성이 하고 차례상 음식 마련은 여성이 하는 것이 공평하다'에서의 평균점수는 남성은 3.65점, 여성은 4.39점이었고 '집안일에는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남성은 3.61점, 여성은 4.33점이었다. '딸은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에서의 남성 평균점수는 3.56점으로, 여성 평균점수는 4.09점으로 나타났다.

## 6. 토론

성별 비교에서 모든 영역에서 남녀 인식 차이가 있고 20대의 남녀 비교나 50대의 남녀 비교에서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세대의 차이보다는 남녀의 차이가 성평등 의식에서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주었고 20대와 50대 세대간 비교에서는 공적영역과 부계중심적 제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20대가 50대보다는 성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평등 교육 정도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영역별로 보면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나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성평등 교육, 미

투 등으로 촉발된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치과의사들 스스로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은 이상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문항의 결과는 교육에 관한 높은 평등의식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성평등 의식수준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거나 결혼한 딸과 아들에게 다른 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부분은 이제 거의 상식에 가깝게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책임을 지는 것에 비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은 정치권에서 하는 이분법적 선동도 일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서 남녀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꼭 해결해야 할 인식 차이로 드러났다. 또한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 차이를 보인 것은, 공적영역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등 이념적이고 당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한 의견을 교육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침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 남성이 공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성평등을 앞당기는데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 많은 응답 여성치과의사들이 남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여성도 경제적 규범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나타내어 성평등이 여성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7. 결론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50대보다 20대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전체 남성과 여성, 20대 남성과 여성, 50대 남성과 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20대와 50대에서는 유의한 성평등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에서의 집단별 평균점수는 다음과 같다. 전체 남성은 4.13점, 전체 여성은 4.61점, 20대는 4.42점, 50대는 4.34점, 20대 남성은 3.96점, 20대 여성은 4.63점, 50대 남성은 4.20점, 50대 여성은 4.55점이었다. 점수의 범위가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점수가 4점을 상회하지 못한 20대 남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성평등 의식이 우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남성의 평균점수는 3.25점, 전체 여성의 평균점수는 4.24점이었다. 20대는 4.03점, 50대는 3.70점이었고 20대 남성은 3.35점, 20대 여성은 4.36점이었으며 50대 남성은 3.37점, 50대 여성은 4.20점이었다. 여성은 일관되게 4점 이상의 점수를 보인 반면, 남성은 일관되게 3점대의 점수를 보였다. 성평등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해선 여성에 대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의 남성의 의식이 견인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및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또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 성역할 규범의 경우, 전체 남성과 여성의 평균점수는 3.83점과 4.45점이었으며 20대와 50대의 평균점수는 4.60점, 3.88점이었다. 20대 남성은 4.12점, 20대 여성은 4.80점이었고 50대 남성은 3.67점, 50대 여성은 4.20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성역할 규범의 평균점수의 경우, 남성은 3.48점, 여성은 4.33점이었고 20대는

4.26점, 50대는 3.76점, 20대 남성과 여성은 3.69점과 4.53점 그리고 50대 남성과 여성은 3.51점과 4.1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체적으로 성역할 규범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이 보수적인 인식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는 20대와 50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외 집단인 전체 남성과 여성, 20대 남성과 여성 그리고 50대 남성과 여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남성의 평균점수는 4.18점, 전체 여성의 평균점수는 4.64점이었다. 20대는 4.39점, 50대는 4.37점이었고 20대 남성은 3.99점, 20대 여성은 4.58점, 50대 남성은 4.18점, 여성은 4.65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2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평균점수가 4점을 상회하며 20대 남성 또한 3.99점임을 고려할 때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평등 의식 수준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균점수는 다음과 같다. 전체 남성은 3.55점, 전체 여성은 4.30점이었고 20대는 4.14점, 50대는 3.80점이었으며 20대 남성과 여성은 3.78점과 4.32점, 50대 남성과 여성은 3.52점과 4.21점이었다.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은 3점대, 여성은 4점대인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나, 가정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 8. 제언

이번 조사연구는 치과의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본격적인 성별 인식조사로서 향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양성평등위원회 등에서 치과 의사 성평등 관련 정책 제도 등을 입안할 때 활용될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설문결과를 치과전문지, 심포지움 등을 통해 치과계와 공유해야 하며 치과 의사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치과 의사 보수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치과계 언론에 성평등 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킬 수 있는 칼럼 연재 등을 통한 치과계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연구의 출발선에서 치과 의사 집단의 성평등 의식과 여타 집단의 성평등 의식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 활용한 설문 조사지를 이용한 여타 집단의 조사연구 결과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의 부재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가 가능하다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의 성평등 의식비교 또는 치과 의사 집단 내부에서 일정한 성평등 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성평등 의식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WDA**  
대한여자치과의사회

